국내
마감시황

2026.3.1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반도체주 강세에 코스피 반등

지정학적 불안 지속되며 외국인 양시장 순매도
엔비디아 GTC 및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주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549.85pt (+1.14%)	1,138.29pt (-1.27%)	826.83pt (+1.7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97.50 원 (0.0 원)	3.7090% (+0.8bp)	6,677.00pt (+0.62%)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7,162 억	+7,122 억	-44 억
외국인	-8,508 억	-5,007 억	-6,680 억
기관	+903 억	-1,716 억	+6,722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주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란의 장기전 우려와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번 주 엔비디아 GT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14% 올랐고, KOSDAQ은 1.27%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1.6조원, KOSDAQ은 약 13.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8천억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화학과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바운드 증가 전망에 유통주가 반등했습니다. 대기업 중복상장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주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해운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원전주와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전력기기, 자동차 업종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신세계(+7.06%), SK하이닉스(+7.03%), 삼성전자(+2.83%)가 올랐고, 삼성중공업(-6.35%), 삼천당제약(-5.44%), 현대차(-2.13%)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